

# '세계잼버리 성공 마무리' 전주시민 한마음

### 봉사단체·민간단체, 음식·간식 꾸러미 등 잼버리 대원들에게 전달

음료수와 간식 꾸러미 등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소원하는 전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잼버리 대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에 머무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을 향한 민간단체의 물품·음식이 전달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당장 청소년범죄예방단체는 지난 8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기원하며 음료 1000여 개와 수박 주스 800여 개를 전주대학교에 머무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또 전주대를 직접 찾아가 물품을 기증하면서 "전주에 머무는 기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또다시 찾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전주지역 민간 봉사단체들이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나눠줄 초코파이와 산도, 마이쥬, 젤리 등으로 가득 채워진 간식꾸러미 2000여 개를 만들고 있다.

있다. 원불교봉공회와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전주에 머무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전달될 간식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민간 봉

사단체들은 초코파이와 산도, 마이쥬, 젤리 등으로 가득 채워진 간식 꾸러미 2000여 개를 만들어 잼버리 대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잼버리 대원들이 머무는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와 전복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원들이 머무는 대학교별로 운영과 통역, 보건, 위생, 안전, 봉사 등으로 구분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대회 진행을 돕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출한다. 전주시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전통시설인 한국전통문화의전당과 전주역전예술회관,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공연·관람·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는 전주시민의 마음이 하나씩 도착하는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이 더한다"면서 "세계잼버리 대원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오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주푸드 출하농가 재배기술 교육.

## 전주푸드 출하농가 재배기술 교육

###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를 출하하는 농가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알려주기로 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9일 센터 3층 교육장에서 전주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자 품종에 대한 생리 장애와 영양 및 병해충관리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농가에서 희망하는 품목별로 총 8회차에 걸쳐 32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교육에는 이규빈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이화박사)가 강사로 초청돼 감자(씨) 상식과 특징, 국내감자

품종에 대해 소개했다. 또, 재배관리기술과 주요 생리장애와 감자역병·마름병·바이러스병 등 병충해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이날 감자품목 교육을 시작으로 양파와 무, 마늘, 고구마, 배추, 고추 등 품목별로 7일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센터는 매년 출하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과 재배기술교육,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센터는 지난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푸드를 출하하는 72개 농가의 80여 품목이 '전주시 품질 인증'을 받도록 도왔다. 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푸드 출하농가 및 가공 업체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가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김욱기 기자



### 재경완산고총동문회, 후배들 전주풍남학사 기숙사비 지원

졸업 후 서울에서 생활하는 완산고등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의 전주풍남학사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완산고총동문회(회장 홍성범)는 9일 전주풍남학사와 전주풍남학사에 기속하는 모교 출신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의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학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범 총동문회장과 황영선 운영위원장 등 재경완산고총동문회 임원진과 장은경 풍남학사사무소장, 후원대상자인 완산고 출신 풍남학사 재학생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주풍남학사에서 생활하는 완산고 출신 학생들은 기숙사비 부담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욱기 기자

## 우범기 시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 불법 쓰레기 투기 환경 개선 권역별 수거제 신속 정착 당부

전주시 쓰레기 수거 체계가 권역 수거 방식으로 바뀐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청소수행 현장을 둘러보고,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완산구 중화산동과 덕진구 유아동 일원에서 권역 수거 시행 이후 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권역 수거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에 남아 있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수거제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원활한 청소 수거 업무 수행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동참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기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 성상별로 각각의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완산구 중화산동 일원에서 권역 수거 시행 이후 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의 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등을 한 개 업체가 도맡아 담당하는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전환했다.

수거 체계 전환 초기에는 수거 처리 지연 등으로 하루 평균 451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민원 건수가 167건으로 줄어드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

만, 앞으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불법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가장 먼저 환경관리원들의 가로 정비와 대영업체의 정기적인 수거로 개선될 수 있지만, 권역 수거의 조기 안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보건소, 아동센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방학을 맞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방학인 8월을 맞아 태평지역아동센터 등 전주지역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강·운동·영양·음주예방·흡연예방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 및 잇몸병 유무 등의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체조 및 스트레칭, 음주가 인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흡연예방교육.

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상 음주 체험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폐활량 체험 △간접흡연 바로알기 등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운영된다.

김신선 소장은 "이번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구강, 음주 예방, 영양(비만), 흡연 예방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 및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